

# 카카오로 더 젊게... 120만 신규계좌와 80%가 '2030'

##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 ③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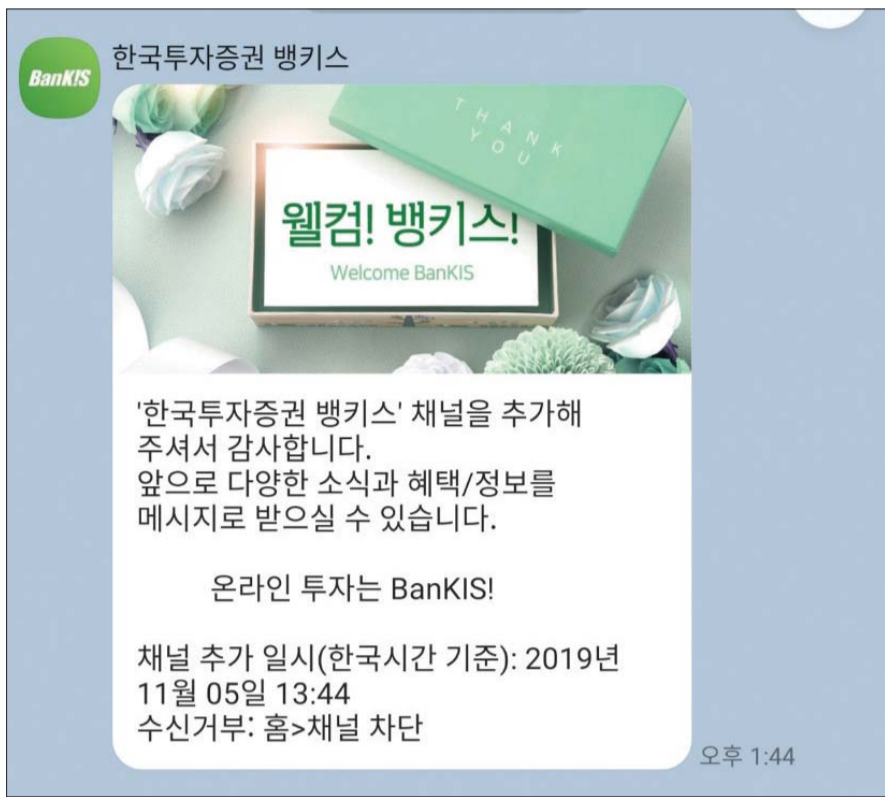
카카오뱅크와 손 잡고 채널 개설  
젊은세대 구미 당길 행사기획  
미래 증권사고객 선점에 주력

20·30세대의 젊은 투자자는 모든 증권사의 미래 고객이다. 재산 증식기인 30대 중반 이상의 남성이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념은 이제 깨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젊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3월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이들의 협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와 연계해 한투증권에 가입한 신규 계좌 수가 120만 좌를 넘어섰다.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계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겠다는 카카오의 야심과 디지털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투증권의 고민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20·30 젊은 소액 투자자를 잡아라

한투증권은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투자자 공략에 힘쓰고 있다. बैं키



한국투자증권 बैं키스 채널.

스 이벤트, 5000원의 축하금 지급 이벤트 등 젊은 세대의 구미를 당길만한 행사를 연이어 기획 중이다. 월간 사용자가 약 44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의 과급력 덕을 톡톡히 봤다.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일

문 사장의 의지기도 하다. 정 사장은 취임 초부터 디지털 금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디지털 금융 추진 조직이 신설된 것과 업무 개선 조직을 경영기획총괄 직속 업무혁신추진부로 확대 개편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주식,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개척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정 사장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들어온 고객 120만명 중 80% 이상이 20·30세대의 젊은 층”이라며 “인터넷 구매에 익숙한 이들이 애플 같은 유망 해외 주식을 온라인 쇼핑 하듯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 사장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투증권은 예비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벤트도 기획했다. बैं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킹 모의투자대회’다.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주간 진행 중이다. 투자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이며 1억원의 모의투자 운영자금을 활용했다. 최서룡 e비즈니스본부장은 “이번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기프티콘 대신할 ‘금융투자상품권’, 이젠 모바일로

이젠 모바일로 금융투자상품권을 주고받는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른다. 내년 5월 출시를 앞둔 한투증권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서비스’ 때문이다. 소비자는 한투증권에서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권을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기프티콘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한투증권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다만 개별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하루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칙 때문이다.

한투증권의 금융투자 상품권은 지난 달 금융위에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중 하나에 포함됐다. 한투증권은 2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권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된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상품권을 유통할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의 단계에 있다”며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초보자들이 쉽게 투자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LS전선 초전도 송전기술 준공식 모습. 명노현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중갑 사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LS전선

## LS전선, 세계 최초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용인~신갈 사이 1km 구간서 사업시작

LS전선이 한국전력과 함께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했다.

LS전선은 5일 경기도 용인 흥덕 변전소와 신갈 변전소 사이 1km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 사업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 외에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LS전선은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지만, 상용화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초전도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도심에서는 기존 전력구와 관로 등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케이블만 교체해도 전력량을 늘릴 수 있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juk@

## 한경연 “日국가채무 급증, 남 얘기 아니다”

### 日 저성장·고령화·경기부양책 반복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비슷한 일본이 저성장과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한국 경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며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이 내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가 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나오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은 하향 등의 공

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차이는 일본은 대외금융순자산이 세계 1위이고 경상수지 흑자에서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

## 구직자 10명 중 6명 “돈 쓸수록 취업 가능성 ↑”

### 인크루트·알바콜 구직자 설문조사

자격증·외국어에 가장 많이 지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위해 돈을 많이 쓸수록 합격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많이 쓰는 취업 사교육비 분야는 자격증과 외국어였다.

5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구직자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는 ‘구직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즉 취업사교육비와

합격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취업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분야(중복 선택)로는 △어학시험(20.8%) △전공 자격증(19.3%) △자격증(18.8%) 순으로 많았다. 공인시험과 자격증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외국어에 지출한 비율이 높았고, 자격증에 쓴 비율이 도합 38.1%로 취업 사교육 지출 1위에 꼽혔다.

구직자들이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최소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에 달했다.

/한용수 기자 hys@

4년간 271억 투입, 전력생산 효율 UP

SK텔레콤은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효성,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구성된 ‘SKT컨소시엄’으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정보를 수집·이용해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 하는 전력망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국책과제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의 일환이다.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2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왼쪽)과 신용식 SK텔레콤 스마트 에너지 시티 유닛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컨소시엄은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고객참여형 그린 요금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가정에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하고 시간별·기기별 사용량을 분석해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1000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생산한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을 차감받거나 전력중개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컨소시엄은 광주시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분산자원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를 통해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분산에너지자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고, 생산된 전력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